

견훤문학의 문예콘텐츠화에 대한 연구

-완산요(完山謠)를 중심으로

손종흠*

<차 례>

1. 머리말
2. 견훤의 생애와 아래자설화(夜來者說話)
 - 2.1. 견훤의 생애
 - 2.2. 견훤과 아래자설화
3.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 3.1. 완산요의 내용과 서지(書誌)
 - 3.2. 완산요의 콘텐츠 자료
 - 3.3.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
4. 맺음말

<국문초록>

선조들이 만들고 즐겼던 고전시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한다. 작품의 내용, 작품 형성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작품과 관련을 가지는 역사적 사실, 작가에 대한 정보, 관련 유적 정보, 작품과 관련을 가지는 방계 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용이 풍부하면 할수록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예술적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지금까지는 각각 분리된 채로 존재했고, 정보와 정보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과정과 이론이 반드시 필요했다. 종래의 이런 이해 방식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반화할 것으로 보이는 빅 데이터가 기초를 이루는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누군가에 의해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되고, 이론화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면서 수요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정보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정보시대는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전시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고전시가는 작품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정보들을 빅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분류한 다음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정보들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 문예콘텐츠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후백제를 세운 시조인 견훤과 관련을 가지는 시가인 <완산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견훤의 생애 관련 자료, 역사적 활동 자료, 유적 자료 등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하나로 모아 빅 데이터화 한 다음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사물인터넷 방식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문예콘텐츠를 창조해야 한다. <완산요> 관련 정보는 견훤의 출생과 죽음에 이르는 생애 자료, 세력의 확장과 건국 과정에 대한 자료, 견훤과 관련을 가지는 산성 자료 등으로 크게 분류한 후 다시 아래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견훤의 출생 설화인 아래자설화와 같은 방계 자료에 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들이 사물인터넷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를 갖춘 <완산요>의 문예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수요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허브와 허브에 담긴 정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를 따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적합한 것들을 맞춤형정보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완산요>와 같은 방식의 문예콘텐츠의 창조는 고전시가 전체 작품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는 고전문학 전체 작품이 이러한 방식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완산요, 견훤, 후백제, 문예콘텐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1. 머리말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빅 데이터(big data)¹⁾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엄청난 대용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21세기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삶의 질을 새롭게 바꾸어놓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의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그것의 향유 방식 등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사물인터넷의 일반화는 문명의 체계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이고, 문명의 체계가 바뀌게 되면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현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적 현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방식과 함께 고전문학의 한 분야인 고전시가 역시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고전시가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향유의 방식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춤형정보시대의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불리면서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고전시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활자화된 텍스트로만 존재해왔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우리는 화석화된 자료에 대한 해석과 그것이

1) 빅 데이터 기술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체계화하고 정보화하여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며, 분석하여 그것을 맞춤형정보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를 한층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중심이다. 빅 데이터는 사회 구성원마다 개별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맞춤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니는 예술적 의미를 분석하여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전시가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더 이상 작품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현대인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숨 쉬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화석화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의미만 강조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시가를 비롯한 고전문학 속에는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문학이라는 예술적 형식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전시가는 매우 소중하며,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 또한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석화된 기록문학으로서의 고전시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고전시가는 작품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소통함과 동시에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정보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한 편의 시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IoT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둘째, IoT 방식으로 연결된 정보들을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문예콘텐츠로 재생산하며, 셋째, 다양한 주제를 갖춘 정보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정보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후백제 건국의 시조인 견훤과 아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완산요>를 중심으로 하는 문예콘텐츠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견훤의 생애와 아래자설화

2.1. 견훤의 생애

2.1.1. 견훤의 출생과 성장

후백제의 건국시조인 견훤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갈전2리 아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와 출생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과 설화적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태어난 공간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그의 출생과 성장은 매우 특이하다. 견훤은 경상도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이(李)였지만 장성한 후에 견(甄)으로 바꿨다. 아버지는 아자개(阿慈介)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다가 뒤에 가세를 일으켜서 장군이 되었다. 견훤이 강보에 싸여 있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잠시 숲속에 놓아 둔 적이 있었다. 이때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점점 자라나니 체격과 용모가 웅장하고 기이하며 생각과 기개가 대범하고 뛰어나서 보통 사람과 달랐다. 군대에 입대하여 서울에 들어갔다가 서남쪽 해변에서 수자리를 섰는데, 창을 베개처럼 베고서 적을 기다렸다. 그 용감한 기상은 늘 일반 병사들보다 앞서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장(裨將)이 되었다고 했다.²⁾

역사서에 기록된 견훤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견훤이란 인물이 뛰어난 재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린 아이 시절

2) 甄萱尙州加恩縣人也. 本姓李後以甄爲氏. 父阿慈介, 以農自活, 後起家爲將軍. 初萱生孺褌時, 父耕于野, 母餉之, 以兒置于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 及壯 體貌雄奇, 志氣倜儻不凡. 從軍入王京, 赴西南海防戍, 枕戈待敵, 其勇氣恒爲士卒先, 以勞爲裨將. 唐昭宗景福元年, 是新羅眞聖王在位六年. 嬖豎在側, 竊弄政柄, 綱紀紊弛, 加之饑饉, 百姓流移, 群盜蜂起.(『三國史記』, 「列傳」, 甄萱)

에 호랑이가 젖을 먹었다는 사실은 천지자연을 움직이는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영물까지도 견훤의 뛰어난 자질을 알아볼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견훤의 출생과 성장이 일반인과 매우 다르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웅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³⁾ 현재 전해지지 않는 문헌 중 『이비가기(李碑家記)』⁴⁾라는 기록에 의하면,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 신라 진흥왕의 증손자이며, 그의 자식은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그 중 맏아들이 고려의 상보(尙父)가 된 견훤이고 나머지 아들 넷도 모두 장군이였다.’⁵⁾고 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견훤은 신라의 왕족으로 뛰어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된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나머지 형제의 이름까지 적시할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록보다 정확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도 있었던 직계 왕족 출신인 아자개가 문경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은 말기에 이르러 한층 심해졌던 신라 왕실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쫓겨 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에 대한 원한과 불만 등이 가득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나중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유독 신라에 대해 한층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민심을 얻어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된 견훤이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景哀王을 자살하게 하고, 온갖 횡포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존속시키면서 왕족인 김부(金傅)를 새로운 군주로 세우고 스스로 물러간 것 역시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해 준 뿌리

3) 이는 부계(父系)가 이물(異物)이라는 점을 통해 주인공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비범한 인물의 출생설화로 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4) 『삼국유사』에서 견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일연이 인용한 문헌이다. 누가 지었는지, 어떤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지 전혀 알 수 없다.

5) 眞興大王妃思刀, 諡曰白賊夫人. 第三子仇輪公之子, 波珍干善品之子角干酌珍. 妻王咬巴里生角干元善. 是爲阿慈个也. 慈之第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 其長子是尙父萱. 二子將軍能哀. 三子將軍龍盖. 四子寶盖. 五子將軍小盖. 一女大主刀金(『三國遺事』, 「後百濟 甄萱」)

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5천 명의 무리를 모아 武珍州를 점령하고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차마 왕이라 하지는 못하고 신라서면도통지휘 병마제치지절도독 전무공등주군사행 전주자사겸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 개국공(新羅西面都統指揮 兵馬制置持節 都督 全武公等州軍事行 全州刺史兼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 開國公)으로 칭하면서 신라의 신하임을 자처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미칠 수 없을 정도의 면모와 자질을 지닌 인물로 태어나 나라를 세우기는 했으나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군주였기 때문에 건훤의 혈통과 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록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가 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 정도의 지도자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영웅적인 기질을 지니고 태어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1.2. 봉기와 세력 확장

신라의 제37대 선덕왕부터 제56대 경순왕까지를 하대(下代)라고 한다. 하대 156년간 신라는 왕권의 약화, 정치의 문란 등이 겹치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 국가였던 신라가 점차 쇠퇴하면서 멸망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고, 천 년의 사직을 고려에 넘겨주게 된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백성과 세상을 구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새로운 인물들이 도처에 일어나면서 군웅할거 시대가 된다. 지금의 상주 지역인 사벌주(沙伐州)에서는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등이 반기를 들었고, 북원(北原)에서는 양길(梁吉)이 궁예(弓裔)를 부하로 삼아 세력을 떨쳤으며, 서남쪽에서는 붉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로 적고적(赤袴賊)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건훤도 신라에 반기를 들어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⁶⁾ 그사이 북쪽에서는 궁예가 양길을 몰아내고 스스로 태봉의 왕이 되어 철원 지역

에 도읍지를 정했다. 그의 세력은 한반도의 서남쪽까지 뻗어서 견훤과 영토 분쟁을 벌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볼 때 부패하고 약해진 신라에 반기를 들면서 일어났던 여러 군웅들 중 견훤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주에서 일어난 양길은 궁예를 부하로 둘 만큼 초기에는 강한 세력을 가졌지만 견훤이 비장이란 벼슬을 주어 부하로 삼았고, 양길이 그것을 받아 들였다는 것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견훤이 군소 세력을 통합하면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할 당시만 해도 신라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맞설 상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궁예가 양길을 몰아내고 한반도 북쪽의 동서 지역에 걸쳐 세력을 구축하면서 후고구려를 세우니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견훤의 후백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시대를 열게 된다. 탁월한 리더십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삼남지역을 석권한 견훤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러 형태의 성을 쌓았는데, 상주와 문경 지역의 산성과 전주, 정읍, 나주 등 전라도 지역의 산성, 괴산, 청주, 문막 지역의 산성 등으로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산성의 흔적이 남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곽들을 보면 견훤이 자신의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견훤은 지금의 광주인 무진주에 진군하여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후백제의 탄생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기에 이른다.

2.1.3. 후백제의 건국과 후삼국의 쟁패

세력을 확장해가던 견훤은 곡창지대인 충청과 호남지역을 석권하면서

6) 於是，萱竊有觀心，嘯聚徒侶，行擊京西南州縣。所至響應，旬月之間，衆至五千人。遂襲武珍州自王，猶不敢公然稱王。自署爲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是時北原賊梁吉雄強，弓裔自投爲麾下。萱聞之，遙授梁吉職爲裨將。(『三國史記』，「列傳」，甄萱)

부터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었던 포부를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일정한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했는데, 오래동안 신라의 폭정에 지쳤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로 생각되는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훤이 강력한 세력으로 여러 지역을 석권해가자 자연스럽게 민심이 따르게 되었고,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건훤이 완산주에 이르자 그곳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본 건훤은 크게 기뻐하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국의 시원을 살펴보니, 마한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뒤에 혁거세가 발흥했으며, 진한과 변한이 그 뒤를 따라 일어났다. 이 때 백제는 금마산에서 나라를 세운지 6백여 년이 나 되었는데, 총장(摠章) 연간에 당(唐) 고종(高宗)이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정방 장군을 파견하여 13만의 대병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의 김유신도 세력을 회복하여 쳐들어 와서 황산(黃山)을 지나 사비(泗水)에 이르러서 당의 군사와 협공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내가 지금 도읍을 완산에 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갚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스스로 일컫기를 후백제왕이라 하고, 관직을 설정한 다음 직책을 사람들에게 분담시켰으니, 이때가 서기 892년이였다.⁷⁾

현존하는 기록으로 볼 때 신라 말기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세력 중 나라를 세우고 외교력을 발휘하여 중국에까지 사신을 보낸 사람은 건훤이 유일하다. 외교사절을 당나라에 보내지 않고 오월국(吳越國)에 보냈다는 사실 또한 절묘하다.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한을

7)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勃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六百餘年. 摠章中, 唐高宗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庾信卷土, 歷黃山至泗水, 與唐兵合攻百濟滅之. 今予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年, 新羅孝恭王四年也. 遣使朝吳越, 吳越王報聘, 仍加檢校太保, 餘如故.(『三國史記』, 「列傳」, 甄萱)

풀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호를 후백제로 했는데, 당나라에 건국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당나라는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쇠망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외교사절을 보낼 필요가 없었고, 오월국에 사신을 보냄으로써 당나라를 무시한다는 견훤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견훤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통치력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되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안정된 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되자 후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후고구려의 궁예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가의 제도를 정비한 견훤은 신라의 도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 와중에 궁예가 서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오자 자연스럽게 후백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 궁예가 전라도 영암까지 내려와 견훤과 전투를 벌였던 것을 보면 그의 세력 역시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⁸⁾ 궁예의 남진을 막기 위해 견훤은 중요한 지역 여러 곳에 성을 쌓아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 신라가 직접 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팽팽하게 맞서던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세력 다툼은 왕건이란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대반전을 맞이한다. 스스로를 부처라고 하면서 폭정을 일삼던 궁예가 부하들에 의해 쫓겨나고, 왕건이 즉위하여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견훤은 신라와 고려를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⁹⁾ 특히 후백제가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자 신

8) 天復元年, 萱攻大耶城不下. 開平四年, 萱怒錦城投于弓裔, 以步騎三千圍攻之, 經旬不解. 乾化二年, 萱與弓裔戰于德津浦. 貞明四年戊寅, 鐵圓京衆, 心忽變, 推戴我太祖卽位. 萱聞之, 秋八月, 遣一吉浪閔郃稱賀, 遂獻孔雀扇及地理山竹箭. 又遣使入吳越進馬, 吳越王報聘, 加授中大夫, 餘如故. (『三國史記』, 「列傳」, 甄萱)

9) 六年, 萱率步騎一萬, 攻陷大耶城, 移軍於進禮城. 新羅王遣阿浪金律, 求援於太祖, 太祖出師, 萱聞之, 引退. 萱與我太祖陽和而陰剋. 同光二年秋七月, 遣子須彌康, 發大耶

라는 고려와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전환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본격적인 삼한 경략에 나섰으니 이때부터 전환은 고려와 화친하면서 신라를 공격하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게 된다. 그러나 전환의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신라로서는 고려를 끌어들이어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고, 왕건이 이에 응하면서 고려와 후백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두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환으로서는 벅찬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전환의 세력과 군대가 훨씬 강했으므로 왕건이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전환은 신라의 서울에까지 쳐들어와 왕을 죽게 만들고, 철수하는 도중에 고려군과 팔공산 근처에서 싸워 대승을 거둘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때 김락과 신승겸 등이 왕건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왕건은 변장하여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겨우 목숨을 건졌을 정도로 전환의 군사력은 막강했다.¹⁰⁾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세력을 지녔던 전환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사건이 팔공산 전투가 있고 난 1년 뒤인 서기 929년 5월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병산 전투였다. 안동 부근의 병산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전환에 패배하게 되면서 세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전환의 패

聞韶二城卒，攻曹物城。城人爲太祖固守且戰，須彌康失利而歸。八月，遣使獻驄馬於太祖。三年冬十月，萱率三千騎，至曹物城，太祖亦以精兵來，與之確。時萱兵銳甚，未決勝否。太祖欲權和以勞其師，移書乞和，以堂弟王信爲質，萱亦以外甥眞虎交質。十二月，攻取居昌等二十餘城。遣使入後唐稱藩，唐策授檢校太尉兼侍中判百濟軍事，依前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海東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等事百濟王，食邑二千五百戶。四年眞虎暴卒，萱聞之，疑故殺，卽囚王信獄中，又使人請還前年所送驄馬，太祖笑還之。(『三國史記』，「列傳」，甄萱)

10) 天成二年秋九月，萱攻取近品城，燒之。進襲新羅高鬱府，逼新羅郊圻。新羅王求救於太祖。冬十月，太祖出師援助。萱猝入新羅王都。時王與夫人嬪御出遊鮑石亭，置酒娛樂。賊至狼狽不知所爲，與夫人歸城南離宮。諸侍從臣寮及宮女伶官，皆陷沒於亂兵，萱縱兵大掠，使人捉王，至前戕之，便入居宮中，強引夫人亂之，以王族弟金傳嗣立，然後虜王弟孝廉宰相英景，又取國帑珍寶兵仗。子女百工之巧者，自隨以歸。太祖以精騎五千，要萱於公山下大戰，太祖將金樂崇謙死之，諸軍敗北太祖，僅以身免。萱乘勝取大木郡。(『三國史記』，「列傳」，甄萱)

전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안동, 청송 지역의 30여개 고을과 동해안 일대의 110여개의 성이 왕건에게 항복해 버림으로써 경상북도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까지 확장했던 견훤의 세력은 옛 백제의 땅으로 다시 물러나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견훤은 서기 932년에 예성강 부근까지 쳐 들어가 전선 100여척을 불사르고 고려에서 기르던 말 300필을 빼앗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서기 934년에 있었던 운주(運州-충청남도 洪城) 전투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 정예병 5천을 거느리고 치른 전투에서 고려의 장군 유금필의 전략에 휘말려 3천명 이상을 잃어버리는 패배를 당하자 이 소식을 들은 응진(熊津-충청남도 公州) 이북 30여개의 성이 모두 고려에 항복했기 때문이었다.¹¹⁾ 이로 인해 경상도의 요충지와 금강 이북의 옛 백제 땅을 모두 잃어버린 후백제는 다시 일어설 기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내부로부터 터지고 말았으니 견훤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가두어 버린 사건이 발발한다.

2.1.4. 후백제의 멸망과 견훤의 죽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견훤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인지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쉽게 꺾이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후계자 문제에서 불거진 부모 자식 간의 불화는 급기야 반란으로 이어졌고, 아들에 의해 유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 견훤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자식이 10여명이나 되었다. 그 중 넷째 아들인 금강은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서 특히 사랑하여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눈치 챈 나머지 아들들에 의한 반발이 거셌다. 이때

11) 夏五月萱潛師襲康州，殺三百餘人，將軍有文生降。秋八月，萱命將軍官昕，領衆築陽山。太祖命命旨城將軍王忠，擊之，退保大耶城。冬十一月 萱選勁卒，攻拔缶谷城，殺守卒一千餘人，將軍楊志明式等生降。四年秋七月，萱以甲兵五千人，攻義城府，城主將軍洪術戰死。太祖哭之慟曰：“吾失左右手矣。”萱大舉兵，次古昌郡瓶山之下，與太祖戰，不克，死者八千餘人。(『三國史記』, 「列傳」, 甄萱)

이찬의 직위에 있는 능환이 강주도독으로 나가 있는 양검과 무주도독으로 나가 있는 용검 등과 비밀리에 모의 하고, 서기 935년 3월에 파진찬 신덕, 영순 등과 함께 신검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켜 건훤을 금산사에 유폐한다. 신검은 곧바로 왕위에 올라 대왕이라 칭하고 나라의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¹²⁾ 건훤은 탁월한 지도력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에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으나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복종시키는 능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후계자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금강마저 죽임을 당하자 적국인 고려와 손을 잡고서라도 자신을 내쫓은 신검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게 된다. 금산사에 석 달 동안 갇혀 있던 건훤은 서기 935년 6월에 막내아들 능예(能父), 딸 애복(哀福), 애첩 고비(姑比) 등과 함께 몰래 도망하여 나주로 간 다음, 사람을 보내 왕건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한다.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심복이면서 건훤과 전투까지 벌였던 대장군 유금필(庾黔弼)을 보내 건훤 일행을 위로하고 모셔오도록 했다. 건훤이 개성으로 오자 왕건은 후한 예로 대접하고 자신보다 10년이나 나이가 위였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받든다는 의미를 지닌 상보(尙父)로 모셨다. 궁궐의 남쪽에 있는 궁을 주어 식솔들을 거처하게 하고 양주(楊州)를 식읍(食邑)으로 주어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주었으며, 금, 비단, 병풍, 금침 등과 남녀 노비를 각각 40명씩, 그리고 궁궐의 말 10필을 선물로 주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¹³⁾

건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의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지탱

12) 甄萱多娶妻, 有子十餘人. 第四子金剛, 身長而多智, 萱特愛之, 意欲傳其位. 其兄神劔良劔龍劔等知之, 憂悶. 時良劔爲康州都督, 龍劔爲武州都督, 獨神劔在側. 伊漚能奐, 使人往康武二州, 與良劔等陰謀. 至清泰二年春三月, 與波珍浪新德英順等, 勸神劔, 幽萱於金山佛宇, 遣人殺金剛. 神劔自稱大王, 大赦境內.(『三國史記』, 「列傳」, 甄萱)

13) 萱在金山三朔, 六月, 與季男能父女子哀福嬖妾姑比等逃奔錦城, 遣人請見於太祖. 太祖喜, 遣將軍黔弼萬歲等, 由水路勞來之. 及至, 待以厚禮, 以萱十年之長, 尊爲尙父, 授館以南宮, 位在百官之上. 賜楊州, 爲食邑, 兼賜金帛蕃縟奴婢各四十口內廐馬十匹.(『三國史記』, 「列傳」, 甄萱)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기 936년에 고려로 귀순해온다. 이렇게 됨으로써 왕건은 후백제의 신검에게서 항복을 받기만 하면 삼한을 새롭게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기 936년 2월에는 견훤의 사위이면서 장군이었던 영규가 부인과 의논한 뒤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하면 안에서 내응하겠다는 전갈을 보내오게 되고, 견훤 역시 빨리 군사를 보내 반역자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¹⁴⁾ 때가 무르익었음을 간파한 왕건은 태자와 술희 등에게 군사를 주어 천안으로 미리 내려 보내 준비토록 하고, 그 해 9월 친히 삼군을 이끌고 선발대와 합류해 경상도 선산 부근에 있는 일리천(一利川)을 마주보고 신검과 대진했다.¹⁵⁾ 이 전투에는 견훤도 몸소 참여를 했는데, 애초부터 고려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였다. 왜냐하면 후백제의 장수들 중 상당수가 견훤과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이고, 이미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고려군의 위세만 보고도 여러 명의 장수가 항복을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신검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대패해서 충청도 논산 부근의 황산으로 후퇴를 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연이은 고려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항복한다.¹⁶⁾ 다른 사람들의

14) 甄萱壻將軍英規, 密語其妻曰, 大王勤勞四十餘年, 功業垂成. 一旦, 以家人之禍, 失地, 投於高麗. 夫貞女不事二夫, 忠臣不事二主. 若捨己君以事逆子, 則何顏以見天下之義士乎, 況聞高麗王公, 仁厚勤儉, 以得民心, 殆天啓也, 必爲<三韓>之主, 盍致書以安慰我王, 兼殷勤於王公, 以圖將來之福乎?” 其妻曰 子之言是吾意也. 於是, 天福元年二月, 遣人致意, 遂告太祖曰 若舉義旗, 請爲內應, 以迎王師. 太祖大喜, 厚賜其使者而遣之, 兼謝英規曰 若蒙恩一合, 無道路之梗, 則先致謁於將軍, 然後升堂拜夫人. 兄事而姊尊之, 必終有以厚報之. 天地鬼神, 皆聞此言. 夏六月, <萱>告曰 老臣所以投身於殿下者, 願仗殿下威稜, 以誅逆子耳. 伏望大王借以神兵, 殲其賊亂, 則臣雖死無憾.(『三國史記』, 「列傳」, 甄萱)

15) 太祖從之, 先遣太子武將軍述希, 領步騎一萬, 趣天安府. 秋九月, 太祖率三軍, 至天安, 合兵進次一善, 神劔以兵逆之. 甲午, 隔一利川, 相對布陣.(『三國史記』, 「列傳」, 甄萱)

16) 太祖與尙父萱觀兵. 以大相堅權述希金山將軍龍吉奇彥等, 領步騎三萬爲左翼; 大相金鐵洪儒守卿將軍王順俊良等, 領步騎三萬爲右翼. 大匡順式大相兢俊王謙王父黔弼將軍貞順宗熙等, 以鐵騎二萬, 步卒三千及黑水鐵利諸道勁騎九千五百爲中軍, 大將軍公萱, 將軍王含允, 以兵一萬五千爲先鋒, 鼓行而進. 百濟將軍孝奉德述明吉等, 望兵勢大而整, 棄甲降於陣前. 太祖勞慰之, 問百濟將帥所在. 孝奉等曰 元帥神劔在中軍. 太祖命將軍公萱, 直擣中軍, 三軍齊進挾擊, 百濟軍潰北. 神劔與二弟及將軍富達小達

항복은 모두 받아들이고 가족들도 함께 개경으로 오도록 했으나 반란의 주도자였던 능환의 항복만은 받지 않고 사형에 처했다. 신검은 능환의 협박에 의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 용서하고 사형을 면하도록 했다. 일설에는 신검, 양검, 용검 등의 삼형제가 모두 처형되었다고도 한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건훤은 근심과 걱정으로 병이 들었고 며칠 가지 못해 등창으로 연산의 개태사(開泰寺)에서 세상을 떠난다.¹⁷⁾ 삼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건훤이 세웠던 후백제는 건국한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반도는 고려로 통합되어 475년을 이어간다. 건훤이 세상을 하직할 때 완산주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그의 무덤은 전주가 아득히 바라보이는 언덕인 연무읍 금곡리 마을의 뒷산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건훤과 아래자설화

사람인 여성이 남성으로 변한 異種의 존재와 결합하여 잉태하고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유형인 아래자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처녀의 방에 낮선 남자가 밤만 되면 찾아와서 자고 가는데, 어디서 온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 처녀는 그 정체를 알기 위해 실을 꿰어 놓은 바늘을 준비해서 남자가 벗어 놓은 옷에 꽂아 두었다가 그 실이 간 곳을 찾아가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다. 처녀는 잉태를 해서 사내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일반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영웅적인 인물로 성장하여 성씨의 시조가 되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한다.’ 처녀의 방을 밤에 찾아왔던 남성의 정체는 이야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타나며 식물과 동물로 크게 구분된다. 식물이 남성으로 변하는 것에는 절구공이, 동삼(童參), 차천(車泉)의

能奂等四十餘人生降.(『三國史記』, 「列傳」, 甄萱)

17) 太祖受降, 除能奂, 餘皆慰勞之, 許令與妻孥上京. 問能奂曰 始與良劔等密謀, 囚大王立其子者, 汝之謀也. 爲臣之義當如是乎, 能奂俛首不能言, 遂命誅之. 以神劔僭位爲人所脅, 非其本心, 又且歸命乞罪, 特原其死. 一云三兄弟, 皆伏誅. 甄萱憂懣發疽, 數日卒於黃山佛舍.(『三國史記』, 「列傳」, 甄萱)

오이 등이 있고, 동물이 남성으로 변하는 것에는 용, 구렁이, 지렁이, 수달, 거북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세계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서구의 것은 큐피드-사이키형이라고도 한다.¹⁸⁾ 이중의 존재가 인간 여성과 혼인하여 영웅을 낳은 이야기인 아래자설화는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서동설화’ ‘최치원설화’ ‘노라치설화’ ‘창녕조씨시조담’ ‘채씨소(蔡氏沼)’ ‘광적사(廣積寺)의 거미’ 등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헌에 나타나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래자설화는 이물교구설화(異物交媾說話)라고도 한다.¹⁹⁾

아래자설화는 신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성과 혼인하여 건국의 시조를 낳는 신화가 변형된 유형으로 물질적인 증거물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야기의 신빙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전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견훤의 탄생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렁이 아들’ 이야기는 경상도 문경과 전라도 광주 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아래자설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설화의 내용과 그것이 전해지는 공간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볼 때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쌍류리 비암사(碑岩寺) 전설을 원형으로 본다.²⁰⁾ 수리산 바로 아래에 있는 쌍류리 마을은 동서 양 방향에서 흘러 내려온 시내가 합치는 곳이면서 적석총(積石塚)을 비롯한 고대의 유적이 있는 장소로 신시(神市)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 마을에 살던 처녀가 큰 뱀과 교혼하여 낳은 아이가 마을의 신이 된 것으로, 지형적인 특성이나 이야기의 구성 등으로 볼 때 비암사의 아래자설화가 훨씬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후백제를 세운 건국시조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견훤의 탄생이야기와 결합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¹⁾ 견훤의 탄생설화는 『삼국사기』와 『삼국

18) 張德順, 『韓國의 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136쪽.

19) 崔常壽,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565쪽.

20) 張德順, 위의 책, 138쪽.

21) 張德順, 위의 책, 140쪽.

유사』에서 말하는 공간이 달라서 눈길을 끈다. 『삼국사기』에서는 경상도 가은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고기(古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라도 무진주 북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훤 탄생과 관련을 가지는 지명과 유적 등이 두 지역에 각각 존재하므로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견훤 관련 노래나 설화의 효과적인 문예콘텐츠화를 위해서는 두 지역의 이야기와 유적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자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야래자설화를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완산요>의 주인공인 견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견훤의 출생과 야래자설화가 결합하게 된 과정이나 이 설화가 지니고 있는 문학예술적인 성격, 내용 등은 <완산요>의 문예콘텐츠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3.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3.1. 완산요의 내용과 서지

3.1.1. 완산요의 내용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것으로 노래의 형태를 빌어 불렀다는 <완산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만아들인 신검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어 힘센 장사 30여인이 지켰다. 동요에서 부르기를, ‘가련하다 완산의 아이 아버 잃고 눈물 흘리네’²²⁾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완산의 아이, 혹은 완산의 아이들은 견훤의 아들 중 첫째, 둘째,

22) 初萱寢未起. 遙聞宮庭呼喊聲. 問是何聲歟. 告父曰. 王年老. 暗於軍國政要. 長子神劍攝父王位. 而諸將歡賀聲也. 俄移父於金山佛宇. 以巴達等壯士三十人守之. 童謠曰. 可憐完山兒. 失父涕連酒.(『三國遺事』, 後百濟 甄萱)

셋째인 신검(神劍), 용검(龍劍), 양검(良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후백제를 세웠다가 아들과 신하에 의해 배반을 당해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잃고 한 때 적국이었던 고려로 귀순한 견훤이다. 노래에서 아버지를 잃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으니 견훤을 내치고 스스로 왕위를 이으면서 나라를 승계한 신검 등이 결국에는 왕건에게 패하여 아버지도 잃고 나라마저 잃은 채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완산요>는 참요(讖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요는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헤아려서 예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아이들의 입을 빌어 동요로 불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란, 변란 등이 일어나기 전이나 한 나라가 망할 조짐을 보일 때, 혹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징조가 나타날 때 등의 시기에 이런 종류의 노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사회에서 민족이 성립하면서 신분이 분화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가 등장하면서 권력을 놓고 암투를 벌이는 일들이 언제나 있어왔다. 이러한 경쟁과 투쟁 과정에서는 늘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등장하게 마련이고 이들 사이에는 치열한 전략과 전술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입을 빌어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을 취하는 참요다. 참요의 특징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란 이전의 과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축적된 자료에 대한 압축된 내용과 체계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짧은 형태의 참요 하나에는 과거의 축약과 현재의 사실, 그리고 미래의 변화가 모두 녹아있게 된다. 즉, <완산요>라는 짧은 노래 구절 속에는 아버지를 부정하다시피하면서 독립하여 세력을 구축하고 나라를 세운 견훤의 과거와 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멸망 등이 모두 담기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요는 놀이의 현장에서 불리는 여가요나 일하

는 현장에서 불리는 노동요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바로 <완산요>를 문예콘텐츠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가 되며, 이것으로 인해 다른 어떤 노래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완산요>의 문예콘텐츠는 역사를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인 철학,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 예술적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을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아름다움과 역사적 진실성을 함께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 소스라고 할 수 있다.

3.1.2. 완산요의 서지

<완산요>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축약된 역사성과 삶과 역사에 대한 교훈적인 철학관, 그리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문학성²³⁾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상들의 관심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완산요>와 함께 노래의 주인공인 건훤과 관련을 가지는 역사적 서술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나 설화 등 문학예술로 형상화된 자료와 교훈성을 지니는 다양한 기록 등에 대한 서지사항 전체를 빅 데이터화하여

23) <완산요>는 후백제의 건국과 멸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훤이란 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후백제의 역사가 남긴 흔적은 현재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그 흔적들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면서 재창조된 모습의 문예콘텐츠로 거듭난다면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완산요>에는 역사성 뿐 아니라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당시 사람들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완산요>는 한편으로 실패한 영웅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과 회한을 담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관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산요>에 대해 후대의 문인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여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하면서 해당 시대의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완산요>는 훌륭한 문학적 비유를 표현 수법으로 하는 노래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건훤과 관련된 문학 중 <완산요>는 철학과 역사와 문학을 아우르는 최고의 문예콘텐츠 소스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산요>라는 노래를 맞춤형정보시대에 걸맞은 문예콘텐츠로 체계화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문예콘텐츠로서의 <완산요>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견훤과 <완산요>와 관련을 가지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체계 아래 연결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 조합이 가능하게 되어 수없이 많은 갈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멀리 않은 미래에 이런 모습을 갖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산요>와 관련된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완산요>를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은 고려 시대에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하지만 정통 역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기록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기원과 불교와 관련을 가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편집해 놓은 일종의 설화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는 신화, 설화, 민요 등을 비롯하여 아주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을 수록하고 있어 문화콘텐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일생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인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된 것을 기술한 뒤에 그 전부터 이러한 조짐을 간파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이들의 입을 빌어서 예언적으로 노래한 <완산요>를 소개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고기』 같은 옛 기록들과 민간에서 전해오는 노래나 이야기들까지 총망라하여 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견훤 관련 기록의 총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종합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에 실린 견훤과 <완산요>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의 ‘후백제 견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견훤과 <완산요>

에 대한 기록은 이후로 조선중기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지식인들 사이에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시 등장한다.

18세기 후반에 실학자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에 의해 편찬된 『동사강목(東史綱目)』 제5에는 견훤이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면서 고려로 귀순하는 과정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 <완산요>를 함께 기록하면서 견훤의 포악함과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멸망의 원인으로 꼽는다는 자신의 견해를 남기기도 했다.²⁴⁾ 『동사강목』은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기까지에 이르는 우리민족의 역사를 편년체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인데, 실학자답게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하게 계통을 살펴서 논증하고 시비를 가리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역사서다. 견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는데, 이러한 실증적 세계관이 <완산요> 같은 노래를 함께 수록하도록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문인이면서 시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던 최성대(崔成大, 1691~미상)는 『두기시집(杜機詩集)』에서 견훤성에 대한 것을 시로 써서 남기기도 했다. ‘그대는 황화대를 보았는가! 대 주변 옛길에는 풀 녁쿨만이 자라네, 그대는 견훤성을 보았는가! 성 안의 궁 담장은 이미 풀이 무성하네, 그 옛날의 패업을 지금 사람들 슬퍼하지만, 해마다 봄만이 다시 옴을 보도다.’²⁵⁾ 이 시는 견훤이 도읍지로 삼았던 전주에 있는 옛 고적을 찾아서 느낀 감회를 시로 읊은 것이다. 전주 시내를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황화대에는 잡풀과 녁쿨만이 무성하고 자라고, 후백제의 도읍지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쌓았던 견훤성과 궁궐의 담장은 풀이 뒤덮어서 처량함을 더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때 삼한을 주름잡을 정도로 큰 세력을 가졌던 후백제였지만 한 번 망하고 나니 다시는 다시

24) 安鼎福, 『東史綱目』 第五, 민족문화추진회 고전번역총서, 1978, 46쪽.

25) 君不見黃華臺 臺邊古道生草蔓 君不見甄萱城 城裏宮牆已蕪漫 昔時霸業今人哀 惟見年年春色來(甄萱城, 崔成大, 『杜機詩集』, 卷之十,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008, 517쪽)

일어설 수 없었던 역사의 냉엄함을 작자는 되새기고 있다. 역사적 진실에서 배우는 교훈과 망국의 한을 담고 있는 유적에 대한 애달픈 정서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문인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남인 학자였던 윤기(尹愷, 1741~1826)는 자신의 문집인 『무명자집(無名子集)』에서 600여수에 이르는 장편시인 「영동사(詠東史)」를 수록하고 있는데, 견훤과 <완산요>에 대한 것이 시로 형상화되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영동사」는 『십팔사략』의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을 가지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소재로 삼아 시로 창작한 것인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자료들은 다른 문헌에서 취하여 참고하면서 지었다.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단군에서부터 고려의 멸망까지다. 378번의 시에서는 신라의 경애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라가 어지러워졌음을 노래하고, 다음 편인 279번과 380번 작품에서는 경주로 공격해갔던 견훤이 왕이 놓고 있던 포석정으로 쳐들어가 경애왕을 자살하게 하고 부인들을 옥보인 뒤 보물을 약탈해서 돌아간 것을 시로 읊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견훤과 왕건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읊은 다음, 386번과 387번의 시에서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견훤이 아들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사실을 소재로 하였다. 388번의 시에서는 <완산요>를 소재로 하여 역사에 대한 시인의 정서를 읊조리고 있다. ‘아버지 잃은 가련한 완산의 아이, 나라의 파탄 과연 동요로 징험했네, 수병을 취케 하고 마침내 탈주하니, 투항할 곳은 오직 고려뿐이었다네.’²⁶⁾ 참요에서 소재를 취해오긴 했지만 이 시에는 적대국에 귀순해야 하는 견훤의 참담한 심정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 투항할 곳은 오직 고려뿐이었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작가의 이러한 정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완산요>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것을 소재로 한 기록들은 이상과 같은데,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견훤과 관련을 가지는 다양한 중

26) 可憐失父完山兒 果驗童謠板蕩時 飲醉守兵仍脫走 投降只是在高麗(詠東史, 其三百八十八, 尹愷, 『無名子集詩稿』 冊六,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000, 147쪽)

류의 자료들 역시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2. 완산요의 콘텐츠 자료

3.2.1. 출생과 죽음에 관한 콘텐츠 자료

견훤의 출생과 관련을 가지는 자료와 유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상북도 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설화와 유적이고, 다른 하나는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설화와 유적이 그것이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면 갈전리에 있는 아차마을에는 아자개 집터, 실개천, 금하굴(金霞窟)등의 유적과 야래자설화가 있고,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8킬로 정도 떨어진 농암면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견훤이 바위를 깨고 나왔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 농바우(籠岩)는 구호라는 이름을 가진 하늘의 신선이 내려와서 견훤으로 태어났다는 전설을 지니고 것으로 가은면과 농암면의 경계에 있는 성재산 등이 있다. 한편, 광주 지역에 전하는 견훤 출생 설화는 야래자설화의 유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문경의 것과 동일하다. 유적으로는 견훤의 어머니가 살았다는 북촌으로 볼 수 있는 광주시 북구의 생룡동이 있다. 문경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과 설화는 매우 구체적인 반면, 광주 지역의 지명과 설화는 견훤이 무진주에서 거병하여 기반을 닦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지로 삼았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유적과 설화는 문경의 것이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훤 출생설화는 후대에 와서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 전라남도의 광주, 함평과 전라북도의 남원, 옥구, 정읍, 그리고 경상북도의 상주, 안동 등의 여러 지역에 전승된 것이 확인된다.

견훤의 죽음과 관련된 유적은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사찰로 견훤이 유폐되었던 금산사, 고려에 귀순한 견훤이 등창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연산면의 개태사,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견훤왕릉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아들에 의해 유폐되고, 후백제가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견훤의 죽음과 관련을 가지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견훤의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견훤의 활동에 대한 콘텐츠 자료

기이한 과정을 거쳐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견훤은 신라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민심을 얻으면서 세력을 키워 후백제를 세우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다. 그가 성장하여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와 유적들은 매우 너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견훤이 기반을 닦기 시작한 초기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상도의 문경과 상주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과 유적들이 있다.

견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마가 내려와서 놀던 말을 얻었다고 해서 붙여진 곳으로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골마 시냇가 언덕에 위치한 말바우, 견훤이 천마와 화살이 누가 빠른지를 시험했는데, 말이 느리다고 생각하여 죽인 후에 화살이 와서 꽃히는 바람에 아차라는 소리를 질러서 붙여졌다는 가은읍의 아차산, 견훤이 세력을 길러 처음 일어나서 궁궐을 지었다는 장소인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에 있는 궁터, 견훤이 북을 울리면서 군사를 조련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농암면 종곡1리의 북젓골 등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룡동 뒷산에 있는 후백제성은 견훤이 웅거했던 곳으로 보인다.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견훤이 세웠다는 누대인 황화대, 동립동의 대마산의 꼭대기에 있는 견훤대(甄萱臺)와 견훤대를 마주보고 왕건이 진을 친 장소인 왕건대(王建臺) 역시 견훤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견훤이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말을 기르던 방목평(放牧坪)이 있다. 경주에 들어가서 경애왕을 죽게 만들고 경순왕을 세운 다음 돌아가던 견훤의 군대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김락과 신승겸이 왕건처럼 꾸며서 시간을 끄는 사이 다른 사람의 복장으로 변장한

왕건이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간 전투의 현장인 팔공산, 그 후 1년 뒤에 있었던 전쟁으로 견훤에게 치명타가 된 패전의 공간인 안동의 병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된 후백제의 신검과 고려의 왕건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일리천, 도망가던 신검이 항복함으로써 후백제의 마지막을 고하게 된 황산벌 등은 모두 견훤이 활동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후백제의 소중한 유적이다.

3.2.2. 견훤의 산성에 대한 콘텐츠 자료

신라에 대한 반란군의 성격을 지니면서 출발했던 견훤군은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성이었다. 따라서 견훤의 출생지인 문경과 상주 지역에는 그가 쌓았거나 관련을 가지는 산성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 문경시 농암면 성재산에 견훤이 쌓아서 세력을 키우는 장소로 썼다고 하는 天馬山城은 이곳에 숨어서 견훤이 세력을 길렀던 곳으로 전해진다, 가은읍에 있는 산성으로 견훤과 왕건이 대치하면서 전투를 벌였던 근품산성(近品山城)과 치마단(馳馬壇)이 있고, 역시 가은읍에 있는 산성으로 신라의 경순왕과 견훤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회양산성(曦陽山城)이 있다. 점차 세력을 키운 견훤이 방어와 진격의 교두보로 삼았던 곳으로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있는 견훤산성은 천혜의 요새로 손꼽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산성과 이어지는 것으로 화서면 하송리 대궐터에 있는 성산산성(城山山城)은 견훤이 맨 처음 쌓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산성들은 모두 문경과 상주 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견훤이 직접 쌓았거나 그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유적들이다. 이 외에도 아자개가 성을 쌓고 웅거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상주시 병성면에 소재한 병풍산성(屏風山城)이 있다. 이곳에는 아자개의 무덤으로 보이는 고분도 존재한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는 견훤이 지령이 아들이라는 전설과 함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는 발판으로 하기 위해 쌓았다는 지룡산성(地龍

山城)이 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후용리에는 왕건의 남하를 막기 위해 견훤이 쌓았다는 견훤성이 있다. 이 성에는 견훤이 지혜를 써서 왕건을 물리치고 큰 전과를 올린 전설이 내려온다.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지로 했던 전주에는 서기 901년에 도성의 방어를 위해 쌓은 것으로 고덕산성(高德山城)으로도 불리는 남고산성(南固山城)이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고, 이 성에서 동쪽으로 전주천을 건너 마주보고 있는 승암산(僧巖山)에는 후백제의 궁궐터로 추정되는 것으로 승암산성(僧巖山城)으로도 불리는 동고산성(東固山城)이 있다. 동고산성에는 궁궐터로 볼 수 있는 전주성이라고 새겨진 연꽃무늬 와당(瓦當), 중방(中方), 관(官) 등의 글자가 새겨진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에는 함미성(合米城)이란 이름으로 전해지는 후백제의 산성이 있는데, 견훤의 군대가 먹을 식량을 저장하던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충북 청주시 정북동 토성마을에 있는 정북리토성(井北里土城)은 견훤이 쌓은 것으로 후백제군의 식량을 저장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소실령성지는 군사적 요충지에 지었던 석성으로 남하하는 궁예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견훤이 쌓았다는 산성이다. 전라북도 정읍군 산외면 상두리에 있는 상두산성(象頭山城)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견훤이 쌓았던 산성이다. 이 성은 조선조 鄭汝立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곳에 진을 치고 관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전남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에 있는 금성산성(錦城山城)은 서쪽의 해로를 따라 남하한 왕건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견훤이 쌓았던 산성이다. 또한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와 신촌리에 걸쳐 있는 자미산성(紫薇山城)은 백제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성으로 보이는 산성이다. 견훤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갈마산에 진을 친 왕건의 군대를 막아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고려군에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견훤 관련 산성들은 후백제의 영역과 활동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3.3.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건훤과 신검을 둘러싼 내분과 갈등을 나라의 운명과 연결시켜 표현한 <완산요>라는 짧은 노래 한 편에는 후백제를 세운 시조의 탄생에서부터 나라의 멸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녹아 있다. 비록 짧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노래는 후백제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과정과 필연적인 원인 등을 중심으로 건훤의 출생에서부터 나라의 패망에까지 이르는 전체를 총망라할 수 있는 정보가 함축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믿었던 건훤은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라 일컬으며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仁義로 신하와 백성을 통솔하지 못하고 폭력성을 앞세움으로써 민심이 이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급기야 부하와 아들에 의해 사찰에 갇히는 신세가 되면서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만다. 이 사건은 적국이었던 고려로 귀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보려 한 건훤의 처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왕건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삼한의 통일을 앞당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아버지와 나라를 모두 잃어버린 신검이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과정이 이처럼 <완산요> 한 편에 담겨 있다. 따라서 <완산요>는 건훤과 후백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면서 연결시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망아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 되어 문예콘텐츠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건훤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후백제의 건국에서 멸망까지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완산요>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문예콘텐츠²⁷⁾화 할

27) 문예콘텐츠는 문학예술 관련 자료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정보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알맹이 전체를 가리킨다. 철학과 역사와 문학이 함께 담겨 있는 문예콘텐츠는 빅 데이터를 통해 체계화 된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서 디지털화 한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문예콘텐츠는

수 있다. 첫째, 견훤과 후백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유적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과정, 둘째, <완산요>를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 셋째, 각각의 정보가 주축을 이루어 또 다른 방계 정보와 연결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현존하는 모든 문헌자료와 구전되는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조직화하여 데이터화하는 과정이다. 문헌자료, 구전자료, 유적정보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빅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며 그럴 경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수요자의 요구에 정확히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헌자료는 해당하는 시대에 기록된 것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자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 자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새롭게 창조한 문학예술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직접적이고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거나 미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사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전자료는 과거에 조사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에서부터 현재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전승과 전파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가능한 수준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전되는 자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전승과 전파 과정에서 변이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전승자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과정을 짚어낼 수 있다. 구전자료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 사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전문학화하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되어 문예콘텐츠에 역사성과 다양성을 함께 담는 기반이 된다. 현존하는 유적에 대한 정보는 문예콘텐츠의 내용을 풍부

첫째, 자료의 정확성, 둘째, 자료의 방대함, 셋째, 자료의 체계성, 넷째, 자료의 연결성을 생명으로 한다. 문예콘텐츠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파생콘텐츠의 재창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원전 자료를 1차로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예콘텐츠화가 지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계 함과 동시에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문예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예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유적과 관련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증거물로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구전문학을 꾸준히 재생산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 유적은 사라졌어도 이야기로 형상화되어 전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유적을 복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특히 후백제 관련 유적들은 건훤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들인 까닭에 후백제와 건훤을 중심으로 하는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완산요>를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한 자료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연결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후백제와 건훤 관련 정보 전체를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담아내고 있는 <완산요>가 가장 핵심이 되어 모든 관련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중심 허브가 된다. <완산요>의 문예콘텐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기에서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완산요>의 문예콘텐츠를 이루는 바로 아래의 구성요소는 첫째, 건훤의 출생과 죽음과 관련을 가지는 생애 자료, 둘째, 건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 셋째, 건훤의 산성에 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요자가 <완산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작품에 대한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느 방향을 정해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하위 단위의 정보로 통하는 허브로 작용하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방향과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건훤의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을 가지는 생애자료는 여러 지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훤의 출생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건훤의 죽음과 관련을 가지는 자료는 유폐에서부터 탈출과 항복,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풍부한 정보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견훤의 활동과 산성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짜여야 한다.

<완산요>의 하위 구성요소가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주축을 이루면서 그 아래의 하위 정보가 또 다른 방계 정보와 연결하는 과정은 <완산요>의 문예콘텐츠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완산요> 관련 모든 정보들이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두 번째 단계인데, 완벽한 문예콘텐츠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최종적으로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견훤의 출생설화는 밤만 되면 처녀의 방을 찾아와서 자고 가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야래자설화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견훤의 출생에 대한 자료는 야래자설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또 하나 열어놓아야 한다. 야래자설화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여타의 야래자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의 야래자설화에 대한 정보와도 연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구성의 방식은 생애, 활동, 산성 등 모든 하위 자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완산요>의 문예콘텐츠는 어떤 자료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정보로 통하는 길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무한하게 넓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계에 위치해 있는 허브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의 조합에 의해 수많은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가로 세로 19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바둑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9팩토리얼(factorial, 階乘) 만큼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문예콘텐츠는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가장 폭 넓게 확보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 맺음말

세계화하고 일반화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0세기의 정보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의 일반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할 정도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건과 물건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직전인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의 삶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정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렇게 된 정보만이 생존하게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면서 문화현상의 일부를 이루는 문학예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방식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다. 왜냐하면 활자화된 문헌 자료와 해설서 등을 찾아보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인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문학예술에 대한 정보들이 맞춤형 정보의 방식으로 각 개인에게 전달되고,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활자와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시가는 풍부한 문헌자료와 증거물이 되는 유적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만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작품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자료들

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방대한 빅 데이터를 구성하고, 둘째,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세분화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셋째, 데이터화한 자료와 관련성이 있는 방계자료들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창조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본고에 서는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시가인 <완산요>의 문예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구성 이론은 사물인터넷이 일반화할 멀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고전시가뿐 아니라 고전문학, 나아가서는 문학예술 전체로 확산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정치하고 발전적인 이론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민족문화추진회, 1984.
- 안정복, 『동사강목』 제5,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978, 46쪽.
- 윤 기, 『무명자집시고』 책6,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000, 147쪽.
- 일 연, 『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84.
- 장덕순, 『한국의 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136쪽.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565쪽.
- 최성대, 『두기시집』, 권10,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008, 517쪽.

<Abstract>

Study on how to create a systemized set of Art and Literary Contents of GyeonHwon's literature

Son, Jong-heum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classics poetries made and enjoyed by ancestors requires a range of information and references. These resources include the content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historical fact of the poetrie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poets, remaining relics and other collateral parts. As this collected information becomes quantitatively more abundant, at the end, it enables us to obtain better understanding and to discover details of artistic features more accurately. However, until recent dates, it has been difficult for average people to search and compare references from different areas due to a lack of collective base for those information resources. This is why processes collecting and analysing a variety of the information and its conclusive ideas have been compulsory for people to understand materials. In the near future, this old way of accessing information is expected to undergo huge transformation due to emergence of Internet of Things(IoT) based on extremely large data sets called Big Data. Although, until now, data has been carried on by those who collect, analyse and theorize it, this will be undertaken by IoT where consumers can choose the most suitable range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ir personal needs themselves. Since it seems unavoidable that this customized data setting built up on IoT and Big Data will be a major part

of human lives, Korean classic poetries will be affected, as well. Consequently, in a bid to follow up this trend, the way of consumers receiving information of classics poetries has to be reestablished with a new systemized set of Art and Literary Contents via IoT that allows separated groups of data of literatures to be collected into Big Data and to be analyzed, classified then reconnected correspondingl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Sing of Wansan that was related to Gyeon Hwon by who Later-Baekjae was founded, all the information about his life, activities and historical remains is essential. Art and Literary Contents has to be created to provide customized data to internet user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the data into Big Data, and categorizing under certain criteria and reconstructing based on IoT. Information about Wansanyo is to be separated into story of GyeonHwon's life including his birth and death, expansion of his empir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then subdivided into smaller units to deliver such information. Also, this has to allow data such as the myth of the birth of GyeonHwon known as Yaraeja story(a Cupid&Saiki typed myth) to be provided, and a system needs to be created so that all the information can be mutually interrelated under IoT. Once this systematized Art and Literary Contents has been organized for Wansanyo, it enables literary works to be understood properly as consumers are able to receive the most suitable information as customized one according to numerous ways of accessing data through hub and its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n, where and how they access. Creation of Art and Literary Contents in similar way to Wansanyo's is considered necessary for Korean classic poetries, and, in turn, the whole group of those works is anticipated recreating in such way

218 韓國古詩歌文化研究 제35집

Key words : Wansanyo, GyeonHwon, Later-Baekjae, Art and Literary contents, IoT, Big Data

투고일 : 2015년 1월 11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